

## 와타나베는 그때 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을까?

무라카미 하루키와 비틀즈의 '러버 소울'

“나는 홀로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가,  
가을 햇살이 넘치는 방 안에서 쌍둥이가  
남기고 간 '러버 소울'을 듣고, 커피를 끓였다.  
그리고 온 종일, 창 밖으로 지나가는 11월의  
일요일을 바라봤다. 모든 것이 투명해 속이  
환히 보일만큼 조종한 11월의 일요일이었다.”

—무라카미 하루키, 《1973년의 핀볼》

30여년 전이라 해도 지금 생각하면 선사시대와 같다. 소련은 아직 건재해 제3세계 국가의 혁명을 고취했고 미국은 베트남이라는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파리에는 68학생운동의 물결이, 프라하에는 민주화 열풍이 몰아쳤다. 바리케이드가 쳐진 대학교 교정 밖에는 하버드대를 박차고 나온 심리학자 티모시 리어리가 《황홀경의 정치학(The Politics of Ecstasy)》을 통해 마약 LSD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 샌프란시스코로 모여든 히피·케이·페미니스트·선(禪)수행자·폭주족 등을 열광시켰다. 삶이 일종의 록 페스티벌과 같았던 시절이다.

### 비틀즈를 듣다가 피곤해지는 이유

군조(群像)신인상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미국풍의 소설을 쓰던 신인작가이자, 재즈카페 '피터 캣'의 주인이 더 어울리던 무라카미 하루키가 《1973년의 핀볼》을 쓴 것은 1980년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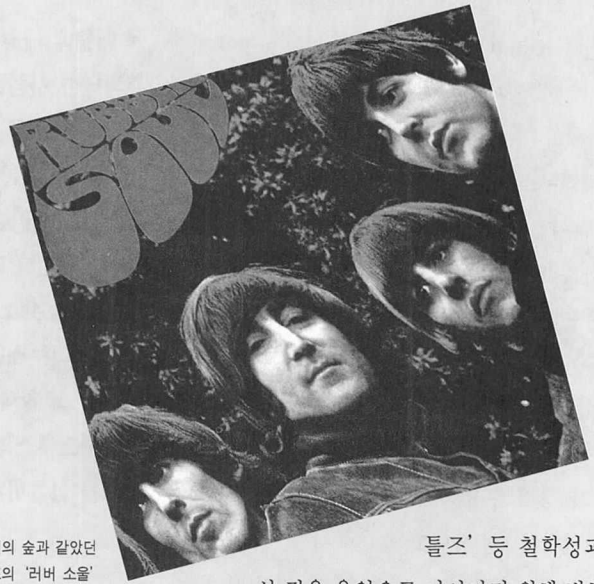
이 소설에는 208, 209라는 이름의 쌍둥이 자매가 등장한다. 이 쌍둥이 자매는 어느날 돈을 모아 음반을 하나 사온다. 바로 비틀즈의 '러버 소울'이다. 주인공은 “이런 레코드는 산 적이 없는데”라고 놀라 소리친다. 갑작스런 반응에 쌍둥이가 “비틀즈 안 좋아해요?”라고 묻자, 주인공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이 없다. 그리고 잠시 후 말

한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조금 피곤해서 짜증이 났을 뿐이야. 다시 한번 듣지.”

주인공이 놀라 쌍둥이에게 상처를 준 까닭은 결코 피곤해서가 아니었다. 이 음반이 옛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과연 어떤 기억인가? 그 대답은 《노르웨이의 숲》이 처음 출간된 1988년에야 들을 수 있었다. 주인공 와타나베가 서른일곱살이 돼 보잉 747기를 타고 독일 함부르크에 도착하기 직전이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금연동이 꺼지고 천장의 스피커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배경음악이 나왔다. 바로 비틀즈의 '노르웨이의 숲(Norwegian Wood)'이었다. 와타나베는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 고통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비틀즈가 '러버 소울'을 발매한 것은 1965년의 일이다. 명반 '헬프'와 '리블버' 사이에 발표된 독특한 음반이다. 비틀즈는 이 음반에 이르러 인도음악을 차용한 '노르웨이의 숲', 도저히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G(솔)음을 끝없이 밀고 나가는 '걸(Girl)', 미묘한 음정변화를 선보인 '미셸(Michelle)', 레너드 번스타인이 클래식에서 버금가는 곡이라 꼽았던 '내 사는 동안(In My Life)' 같은 서정적 깊이를 발견했다.

'러버 소울'은 젊은 비틀즈가 이후 출반한 '리블버', '페퍼 상사의 외로운 마음 밴드', '비



베이비붐 세대의 숲과 같았던 비틀즈의 '러버 소울'

틀즈' 등 철학성과 사회성 짙은 음악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숲같은 존재다. 말하자면 이 사춘기를 거쳐 비틀즈는 십대들의 스타에서 불멸의 스타로 남았다. 그렇다면 무라카미의 주인공들이 괴로워하는 까닭은?

한신(阪神)간의 지방학생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와세다대학 영화과에 등록하기 위해 영어 폐이퍼백 한 권 달랑 들고 도쿄로 상경한 1960년대 말, 곧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듯한 분위기가 전 세계에 가득했다. 하지만 그게 환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소르본느의 마오주의자들은 도서관으로 들어갔고 프라하에는 소련제 탱크가 노도처럼 밀려들었다. 도쿄대 야스다강당은 불에 탄 흉물스러운 폴로 치육의 기념비가 됐으며 미국의 주 방위군은 켄트주립대에 난입해 소총을 난사, 2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비틀즈는 해산했다.

### 폐기된 1973년의 핀볼과 흘러간 옛노래

'1973년의 핀볼'이란 폐기된 젊음의 다른 말이다. 영가처럼 흘러나오는 비틀즈의 옛노래를 뒤로 하고 60년대 캠퍼스의 주인공들은 사회인으로 고도자본주의의 주역이 된다. 이들에게 비틀즈의 노래란 이뤄질 수 없는 꿈의 시절, 어른이 되기 전에 거쳐야 할 숲의 시절을 뜻한다. 은은한 배경음악이 된 비틀즈의 노래를, 이제 돈 주고 사지 않는 비틀즈의 음반을 건디지 못하는 까닭은 그 때문이다. 그 노래는 전혀 낯선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기 때문이다.

—김연수 기자